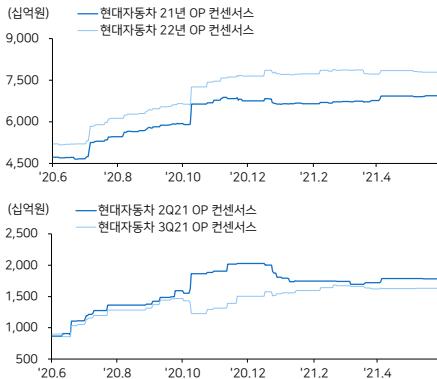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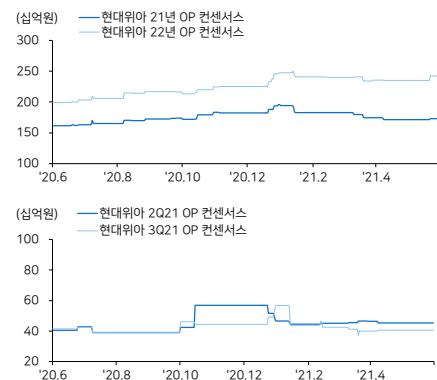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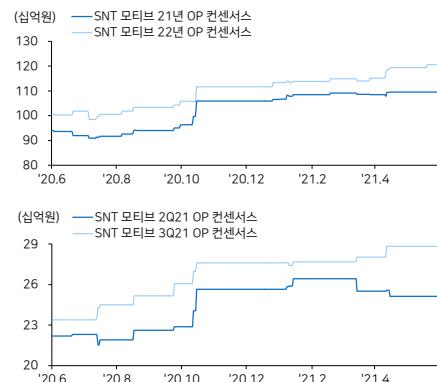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특근 일마안마니’…현대차, 생산 정상화 ‘시동’ (한국경제)

22일 일계에 따르면 그동안 ECU 공급부족으로 특근을 하지 못했던 현대차 울산2공장이 오는 26일 생산 특근을 시행함. 울산5공장과 그랜저와 쏘나타를 생산하는 아산공장의 주말 특근도 곧 재개될 것이라 관측이 나옴.
<https://bit.ly/3gSM9Ju>

현대차, 인도 SUV 시장 장악…점유율 29% 수직상승 (THE GURU)

올들어 5월까지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판매된 SUV는 총 46만7,771대. 이 중 현대차 SUV는 10만9172대로 전체 4분의 1을 차지함. 지난달 SUV 판매는 1만3808대로 SUV 비중이 약 55%에 달해, SUV를 중심으로 현지 시장 장악 중.
<https://bit.ly/3gMbW0B>

승용차 개소세 할인 연장 ‘최대 143만원 할인 혜택’ (지피코리아)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정책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함. 승용차 판매진작을 통한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탄력세율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
<https://bit.ly/3d452rM>

中 자동차공업협회 ‘반도체 대란 2분기가 피크’ (머니투데이)

중국에서 차량용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신차 출시 지연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자동차공업협회는 “하반기부터는 차량용반도체가 중국 완성차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원만해질 것”이라고 전망함.
<https://bit.ly/3xGnCCV>

현대차 ‘아이오닉5’ 전기택시 보급 시동…실구매가 ‘2200만원대’ (전자신문)

현대차가 첫 전용 플랫폼 전기차 ‘아이오닉5’ 영업용 모델의 가격을 확정했다. 서울 개인택시 운전자의 실구매가는 일반 승용 모델보다 최대 600만원 저렴한 2200만원대. 부가적 혜택 고려 시 기존 LPG 택시와 비교해도 경쟁력을 갖춤.
<https://bit.ly/3qjdpeT>

UAM 부품부터 버티포트까지…현대차, 도심 항공 판 키운다 (서울경제)

현대차그룹은 UAM 사업에 자동차 부품 계열사뿐 아니라 공항격인 버티포트 구축을 위해 건설 계열사까지 총동원하는 중. 또 ‘나홀로’ 기술 개발안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선도 기술 기업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며 생태계를 육성 중.
<https://bit.ly/3d5Psq>

한국타이어, 피렐리 제치고 글로벌 타이어 기업 6위 올라 (연합뉴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지난해 매출액 기준 글로벌 타이어 기업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함. 작년 영업이익이 YoY 15.5% 증가했고, 18년치 이상 승용차용 타이어 판매 비중이 35%로 YoY 3%p 상승하는 등 성과의 결과로 설명.
<https://bit.ly/2SW00tr>

피스커, ‘LG 파트너’ 마그나와 전기차 위탁생산 계약 체결 (THE GURU)

피스커와 마그나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오는 2029까지 구속력 있는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양사는 전기차 제조 부터 차량 플랫폼 및 ADAS 등 개발 등 전기차 사업 전반에 걸쳐 파트너십을 확대할 계획.
<https://bit.ly/35HvdQP>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